

성공스토리 속 눈물겨운 사연

확신과 집념의 승리

김학순 | 경향신문 신문발전연구소 소장

성공 스토리에서는 눈물겨운 사연이 들어있다. 굶힐 줄 모르는 집념과 결코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엄청난 청년실업과 경제위기로 너나 할 것 없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요즘이지만 누구든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끈질긴 집념으로 이루지 못할 게 없지 않을까 싶다.

한 젊은이의 소박한 꿈 나비축제 열어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 눈에 잡히는 것은 눈물겨운 사연이다. 어떤 성공담에도 눈물은 빠지지 않는다. 성공한 이들의 눈물에 따라다니는 것은 집념과 끈기다. 자그마한 시골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함평군에서 세계적인 성공작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나비축제'의 뒷 이야기에도 눈물과 집념이 서려 있다.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던 한 젊은이가 엉뚱하게도 나비 표본을 들고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다녔다. 나비축제를 품나는 문화상품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 젊은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 10년 넘게 나비연구에 미치다시피 했다. 그는 나비는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 품이라는 신념에 도달할 정도였다. 마치 요즘 베스트셀러의 하나인 미처야 미친다(不狂不及)는 책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

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비가 축제나 문화상품과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없지 않느냐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쓰는 게 몇 배나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러길 수십 차례. 이 젊은이의 굶힐 줄 모르는 집념은 마침내 구세주를 만난다. 이석형 함평군수가 그의 꿈을 제대로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은 아니었다. 함평군민들은 '멋도 모르는 젊은 군수가 함평을 망친다'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이 군수는 특유의 독심으로 소신을 밀고 나간다. 덕분에 젊은이의 소박한 꿈은 마침내 '함평나비축제'라는 아름다운 잔치로 이루어진다. 1999년의 일이다.

함평나비축제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연상시킨다. 인구 4만2천명의 시골에서 열리는 나비 축제가 올해로 6번째를 맞아 연인원 1백50만명의 인파

로 붐볐고 관광수입으로만 4백1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취월장(日就月將)이란 말이 이럴 때 필요한 듯하다. 무모한 계획이라고 비난하던 이들은 어느새 찬사를 아끼지 않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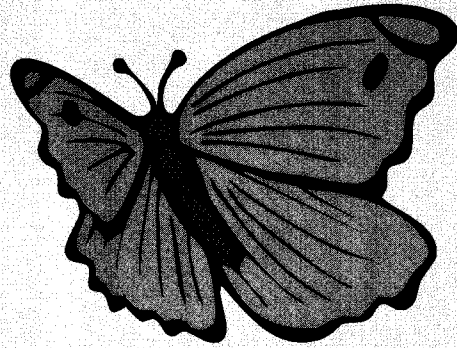
나비축제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그 젊은이는 어느덧 40대가 된 '정현천'이다. 그는 지금 함평군 곤충연구소장을 맡아 일하면서 나비축제를 국제 무대로 승화시켜갈 꿈을 가꾸고 있다.

1,009번째에 얻어진 값진 성공

미국에선 함평나비축제보다 훨씬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우리나라에도 큰길거리 요충지엔 빠짐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가게 앞에서 검은테 안경을 끼고 미소지으며 서 있는 인정많은 할아버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초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인 커넬 할랜드 샌더슨은 고향인 켄터키주 코빈이라는 조그만 마을 입구 도로변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내고 길손들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팔아왔다. 수십년 동안 독특한 비법으로 통닭구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들러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의 나이 65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닥쳐왔다. 그의 레스토랑 근처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 식당손님이 없어지는 바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보장기금으로 받은 105달러로 근근이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다 그는 용기를 내 이른바 '11가지 치킨양념비법'을 사출 식당을 찾아 미국 남부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노구를 이끌고 찾아가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노(No)'였다. '뭘 믿고 당신에게 투자를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하기가 남은 트럭에 양념통과 압력솥을 싣고 나타난 생면부지의 늙은이에게 믿음이 갈 리 만무했다. 웬만한 사람이면 열 번, 적어도 100번 안에는 포기하고 말았을 법하다. 그렇지만 샌더슨 할아버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러길 무려 1,009번째. 그의 독창성을 알아주는 독지가가 나타났다. 바로 그 레스토랑을 시발로 전세계 100여 나라에 3만 여개 매장을 가진 KFC 프랜차이즈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1980년 아흔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이젠 세계 기업가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자신의 비법에 대한 자신감에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집념을 버리지 않은 결과다. 그동안의 한숨과 눈물이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두 이야기는 엄청난 청년실업과 경제위기로 너나 할 것 없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요즘 한줄기 시원한 바람같은 교훈적 실화다. 누구든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끈질긴 집념으로 이루지 못할 게 없지 않을까 싶다. 이번 가을엔 무엇에든 한번 미쳐보자.